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기출문제 풀이 및 해설집
파란破亂구술면접 [인문학] 편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파헤치는

박지성 지음

안내

교재 개관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인문학] 기출문제를 제재로 하여 제시문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 답안을 구상해나가는지를 보여드리는 교재입니다. 다만, **저작권 문제로 인해 기출문제 제시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시문을 포함한 기출문제 원문은 서울대학교 입학처 및 아로리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교재는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구성

2019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총 10개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답안 구상 과정을 안내합니다. 문제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STEP 1. [문제 파악]

STEP 2. [지문 분석]

STEP 3. [답안 구상]

STEP 4. [예시 답안]

교재 활용

[1] 교재를 인쇄하여 1~2페이지의 내용을 숙지한 후, 기출 제시문 하나를 골라 15분 동안 답안을 구상합니다.

[2] 빈 종이나 달력 등 가상 면접관을 벽에 걸어 두고 실제로 답변해봅니다. 이때 반드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주어야 합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말이 꼬이더라도 끝까지 답변을 마쳐야 합니다.

[3]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여 자신의 답안 내용을 정리 및 기록합니다.

[4] 교재의 문제분석을 보며 자신의 답안 구상 과정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문제 대응 과정의 개선점을 모색합니다.

글쓴이 정보

현대청운고등학교 국어 교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철학과 졸업

국어문법 에스프레소 『파란破亂문법』 저자

목차

· 수시모집 일반전형 구술고사 [고사개관] 01p

· 수시모집 일반전형 구술고사 [기본전략] 02p

2019학년도 [인문학]_오전 풀이 및 해설 03p

2019학년도 [인문학]_오후 풀이 및 해설 05p

2018학년도 [인문학]_오전 풀이 및 해설 08p

2018학년도 [인문학]_오후 풀이 및 해설 10p

2017학년도 [인문학]_오전 풀이 및 해설 12p

2017학년도 [인문학]_오후 풀이 및 해설 15p

2016학년도 [인문학]_오전 풀이 및 해설 17p

2016학년도 [인문학]_오후 풀이 및 해설 19p

2015학년도 [인문학]_오전 풀이 및 해설 21p

2015학년도 [인문학]_오후 풀이 및 해설 23p

· 모의 면접 및 구술고사 [인문학] 25p

· 모의 면접 및 구술고사 [사회과학] 27p

· 모의고사 [인문학] 예시답안 29p

· 모의고사 [사회과학] 예시답안 30p

2020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고사 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1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대기실 입장 (오전반 또는 오후반)

한 번 대기실에 입장하면 구술고사를 마칠 때까지 나올 수 없습니다. 소지품도 다 제출해야 하고요. 빈손으로 가만히 있어야 할 겁니다. 여기서 수험번호가 아닌 면접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습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장에 서는 자신의 수험번호나 이름, 출신고교명 등을 말하여서는 안 되며, 면접번호로만 자신을 소개해야 합니다.

2. 준비실 입장 (약 30분)

준비실에 들어가시면 약 30분 간 구술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제시문과 질문은 인쇄된 형태로 보실 수 있으며, 코팅된 채 책상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지(코팅된 제시문)에는 필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눈으로 볼 수만 있습니다. 연습장이 하나 주어지는데요, 연습장에는 무엇을 적든지 관계치 않습니다. 구술고사실에는 이 연습장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3. 고사실 입장 (약 15분)

두 개의 제시문([인문학], [사회과학])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연습장에 작성하여 입장하게 됩니다. 두 명의 면접관이 앉아 계실 것으로 생각되며, 시선 처리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다고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답변하면 됩니다. 면접관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 질문을 드려도 무방하며, 면접 시간이 매우 부족한 만큼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아는 것까지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중언부언하며 무지를 포장하려 애쓰다 보면 채점할 수 없는 답변으로 시간만 소모한 셈이 되니까요. 면접관이 면접을 이끌어어나가는 역할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잘 곱씹으며 최대한 성의껏 대답하다보면 처음에는 몰랐던 것도 답변할 만한 아이디어가 반짝 떠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면접관도 그러한 일을 기대하고 유도하려 노력합니다.

4. 고사실 퇴장

마라톤이 끝났습니다. 지겨울 때까지 마음껏 쉬어도 좋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기본 전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분은 30분 동안 2개의 제시문을 분석해야 합니다. 즉 [인문학] 제시문의 경우 15분 안에 답변 구상을 마쳐야 하며, 그 구상 내용이 모두 연습장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STEP 1. [문제 파악] 문제를 먼저 읽고 과제를 파악한다.

문제를 반드시 먼저 읽을 것을 권합니다. 또한 문제가 나에게 요구하는 내용, 내가 답변을 구상해야 하는 내용을 반드시 정리하여 ①, ②, ③과 같이 번호를 매겨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시문을 읽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을 잊어버린 채 다음 문제로 넘어가버리는 실수를 저지룰 수 있습니다. 제시문당 구상 15분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준비실에서 나를 도와줄 것은 연필과 빈 종이뿐이니, 그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나를 돕게 만들어야 합니다. 빈 종이에 문제를 깔끔하게 원문 그대로 옮겨 적고, 그 아래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깔끔하게 기록해둡니다.

STEP 2. [지문 분석] 제시문의 핵심어를 찾는다.

제시문이 갈수록 쉬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제시문은 (가), (나), (다)와 같이 출처가 다른 별개의 텍스트일지라도 해당 텍스트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슈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하나의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연결고리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텍스트별로 나타나 있는 핵심어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어들을 비교해보면 서로 연결되는 고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기출을 통해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시간 내에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막연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꾸준히 살펴보면 금방 적응되고, 적응되면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핵심어를 찾아 연습장에 옮겨 두도록 합니다.

STEP 3. [답안 구성] 구상한 답안의 핵심어를 기록해 둔다.

이 시험은 논술이 아닙니다. 글을 읽고 사고하는 과정을 평가받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답변을 제출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구술고사인 만큼 주어진 연습장에 답변의 핵심어, 그리고 그 핵심어들 간의 관계를 기호로 표기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발표에서 PPT에 핵심어나 사진 또는 그래프 정도만 띄우고 나머지는 구술로 해결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PPT 개요를 짚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작성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모범 답안을 작성하듯 줄글로 적어나가려 한다면 시간이 매우 부족할 것입니다. 또한 작성된 답안을 면접관 앞에서 줄줄 읽어 나가는 모습도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술고사라고 생각지 마시고 스크린 없이 진행되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간단한 발표 요약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STEP 4. [임기 응변] 막히는 부분은 현장의 나에게 맡기자.

면접관들은 여러분을 떨어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닌 성격이나 성장환경 등에 의한 면접 개인차를 줄이기 위해 여러 도움을 주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시간을 더 소모하지 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면접관은 대화 과정에서 추론의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순발력이 해결해줄 것입니다. 의외로 좋은 답변은 한 순간의 영감으로 완성되기도 합니다.

[인문학]_오전

STEP 1. [문제 파악]

문제를 원문 그대로 연습장에 적어둔 뒤, 다음과 같이 세부 리스트로 분석하여 과제를 명확히 합니다.

[문제 1] 예술작품 또는 고전을 대하는 데 있어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것이 (가)와 (나) 각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하시오.

- ①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예술(고전) 감상 태도는?
- ② 그런 감상태도가 구체적으로 (가)와 (나)에서 나타난 부분은?

[문제 2] (나)의 저자가 셰익스피어의 희극을 무대에 올리려는 연극 연출가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 줄 것인지 말하고, 자신의 독서 또는 예술 감상 경험을 토대로 이 조언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오.

- ① (나)의 저자가 중시하는 예술(고전) 감상 태도는?
- ② 그런 태도로 ‘셰익스피어의 희극’을 연출 → 가장 중요한 것은?
- ③ with 나의 독서 예술 경험 (나)의 저자의 충고는 적절? 부적절?

제시문을 5분 안에 꼼꼼히 읽는다고 해도, 총 다섯 개의 과제를 10분 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구상 시간이 빠듯하겠죠? 키워드만 기록해도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겁니다. 빈틈없이 완벽한 답안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만한’ 수준의 답변을 제한 시간 내에 구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TEP 2. [지문 분석]

제시문을 읽으며 어떤 단어가 핵심어인지 파악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핵심어 추출 예시입니다.

(가)에서는 ‘알마시’가 ‘해나’에게 소설을 낭독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즉 (가)에서는 소설이라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가 ‘알마시’의 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알마시’는 키플링의 소설을 읽을 때 천천히 읽을 것을 주장합니다. 키플링은 펜과 잉크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한 페이지를 쓰다가도 여러 번 쉬었을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쉬어가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원작자의 의도에 따라 감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핵심어 정리

#키플링은 천천히 #침표 주의 #키플링이 펜을 움직이던 속도 생각

(나)의 저자는 어젯밤 올드빅에서 공연된 폭풍에 대해 죽은 셰익스피어가 분명 싫어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어젯밤만의 해프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를 아끼는 이들은 모두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극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 말 자체로 관객을 몰입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희극의 경우 대사는 무시당한 채 몸짓으로 웃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저자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예술 작품을 재현할 때 원작이 지닌 ‘말’과 ‘글’, 즉 원문의 충실한 재현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핵심어 정리

#셰익스피어가 쓴 말 자체 #대사 #글

STEP 3. [답안 구상]

떠오르는 생각의 핵심어만 붙잡아 답안의 열개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답안 구상 예시입니다.

[문제 1] - ① 작가중심 → 작가의 의도 고려, 작품 원문에 충실한 해석
② (가) → 심표, 천천히 끊어 읽어야 / (나) → 말 자체로 몰입, 글 때문에 웃어야

[문제 2] - ① 셰익스피어의 말과 글 충실
② 셰익스피어의 원문 정확한 이해 → 그의 사상, 의도 구현하는 고전 충실 연출
③ 부적절. 차이코프스키 - 100년째 새로운 지휘, 연주 - 그대로라면 아무도 안 들음
고전의 재해석 → 고전의 생명력 획득

STEP 4. [예시 답안]

열개를 보며 핵심어를 엮어 실제로 답안을 구술해봅시다. 다음은 실제 구술 예시입니다.

(물론, [답변 2]의 경우 긍정적 답변도 가능합니다.)

[답변 1]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예술 감상의 태도는 작품에 드러난 창작자의 생각과 표현을 주의 깊게 헤아려 원작을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창작자가 의도한 바대로 감상해야 한다는 작가중심적인 주장입니다.

(가)에서는 이러한 지향성이 원문의 심표를 의식하며 주의 깊게 끊어 읽을 것을 주문하는 알마시의 말로 나타납니다. 창작자 키플링의 집필 환경까지 고려해가며 철저히 작가의 입장에서 감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나)에서는 이러한 지향성이 셰익스피어가 쓴 말 자체로 관객을 몰입시켜야 한다는, 글 때문에 관객이 웃어야 한다는 저자의 비판으로 드러납니다. 셰익스피어의 원작, 텍스트 그 자체에 충실한 공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 2] (나)의 저자는 연극 연출가에게 셰익스피어 희극의 원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셰익스피어의 사상과 의도에 어긋나지 않게 세심히 연출해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연출가가 생각하기에는 의미 있고 창의적인 해석으로 느껴질지라도 그런 연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원작자의 말과 글에 충실한 고전적 연출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품의 해석은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방식의 감상과 해석만이 의미 있다고 여기고 고집한다면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작품은 작가의 손에서 창작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온전히 감상자의 몫입니다. 작가의 의도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은 수많은 감상법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해석이 허용되어야만 고전은 더욱 생명력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그가 의도했던 그대로만 연주해야 옳다고 한다면 100년만 지나도 사람들은 차이코프스키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감동이 없고, 새로운 영감을 주지 못하고, 과거의 누군가가 완벽에 가까운 연주라도 해냈다면 모두 그 연주를 기계적으로 복제하고 따라가는 상황이 되어 모든 차이코프스키 음악은 예술행위가 아니라 재현 훈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음악은 다양하게 해석되어 늘 살아있습니다. 카라얀의 비창과 쿠렌치스의 비창이 서로 다르기에 차이코프스키 음악의 감동은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누군가가 제시할 창의적 해석으로 인해, 그것을 수용할 개방성에 의해 차이코프스키 음악은 미래에도 예술로서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은 지금보다 더욱 풍성한 문화세계를 영유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어떤 하나의 해석만을 허용하려 한다면 당장 우리들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야위고 황폐한 정신세계를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STEP 1. [문제 파악]

문제를 원문 그대로 연습장에 적어둔 뒤, 다음과 같이 세부 리스트로 분석하여 과제를 명확히 합니다.

[문제 1] (가)에는 ‘백락, 천리마, 일꾼, 보통 말’이 언급되어 있다. 여러분이 이 글의 작가라면, 이들 넷으로 비유할 만한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이 글을 읽으라고 권유하겠는가? 넷 중에서 둘 이상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① ‘백락’, ‘천리마’, ‘일꾼’, ‘보통 말’로 비유될 만한 사람은 각각 누구인가?
- ② 이 글의 교훈은 무엇인가?
- ③ ①의 사람들에게 ②의 내용은 어떤 효용을 지니는가?

[문제 2] (나)의 ‘인공지능’이 (가)의 ‘백락’의 역할을 대신한다면, (가)에서 우려하는 문제는 거의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의 ‘천리마’의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 ① (가)의 ‘천리마’가 ‘백락’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 ② (나)의 ‘인공지능’이 (가)의 ‘백락’을 대신할 수 있을까?

STEP 2. [지문 분석]

제시문을 읽으며 어떤 단어가 핵심어인지 파악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핵심어 추출 예시입니다.

(가)에는 백락과 천리마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락은 명마를 잘 감별했던 사람으로 백락이 없으면 명마가 있다고 해도 천리마로 불리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천리마가 천 리를 달리려면 모든 것이 특별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한 끼에 한 섬을 먹여야 하고, 채찍질도 어울리게 해야 하며, 그 울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백락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평범한 이들은 훌륭한 말이 없다고 개탄만 할 뿐, 명마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가)의 작가는 이러한 현실을 개탄합니다.

(가) 핵심어 정리

#명마 #백락 #천리마 #한 끼에 한 섬 #천리마에 어울리는 방법 #그 뜻 알아채 #아,

(나)에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알고리즘, 즉 인공지능에 의한 진로진학 조연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자질이 무엇인지, 자신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진로진학에 관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작가는 인공지능이 수많은 사례를 기반으로 이런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나) 핵심어 정리

#현명한 결정 #어려운 #필요한 자질 #장단점을 정확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조연

STEP 3. [답안 구상]

떠오르는 생각의 핵심어만 붙잡아 답안의 열개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답안 구상 예시입니다.

[문제 1] - ① 백락 : 사회지도층(대기업 임원, 교수)

천리마(↔보통 말) : 젊은 엘리트(대기업 신입사원, 명문대생)

일꾼 : 아르바이트생(직급 낮은)

보통 말 : 취업준비생

② 천리를 가는 재능 있는 존재라도 백락 없으면 → 비극적 최후

대상을 알아보는 안목의 중요성, 보통의 것들이 보통이 아닐 수 있음

③ 백락 : 사회 발전을 위해 젊은이들을 살피고 키우려는 적극적 노력 필요.

천리마 : 백락을 만나는 것과 같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대도 비극적 최후. 겸손+감사.

일꾼 : 사소하게 마주치는 보통의 것들이 어찌보면 보물.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기회

보통 말 : 나도 천리마일 수 있다. 비극적 현실을 참고 견뎌야. 못해도 백리마.

[문제 2] - ①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알아봐 주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공인해주는 것

② 백락의 능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음. 그러나 문제점 有

문제점1 - 귀납의 오류 / 문제점 2 - 차별, 편견의 고착 및 공고화

STEP 4. [예시 답안]

열개를 보며 핵심어를 엮어 실제로 답안을 구술해보시다. 다음은 실제 구술 예시입니다.

[답변 1] 저는 보통 말, 천리마, 백락, 일꾼으로 비유할 만한 이들 모두에게 이 글을 읽으라고 권유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말에 비유될 만한 사람으로 저는 취업준비생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취업준비생에게 이 글을 권하는 이유는 보통 말과 천리마의 차이점이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고 심지어 본인도 잘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선택되지 못하고 선발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자존감이 하락하고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저도 수험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그럴 때 ‘나도 천리마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고, 백락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린다면 정말 천리마처럼 재능을 뽐내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비록 천리마는 아닐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해내는 백리마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천리마로 비유될 만한 사람으로 검사, 의사, 대기업 신입사원 등 우리나라 젊은 엘리트 계층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이 글을 권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사회적 성공을 한번쯤 성찰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천리마는 비록 재능을 타고 났지만, 그 재능을 알아봐준 백락이 있었기에, 천리를 달리는 능력이 쓸모 있는 사회였기에, 천리마로 감별되기 이전에도 일꾼들이 학대하는 환경이 아니었기에 천리마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 능력을 인정하고 있기에, 자신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성장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누리고 있는 성공의 기쁨을 사회와 나누고, 특히 소외된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외된 이들 중에는 분명, 천리마임에도 보통 말처럼 방치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천리마로 발탁된 엘리트는 사회에 책임감을 갖고 항상 겸손하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백락으로 비유될 만한 사람으로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교수 등 사회 지도층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글을 권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자신의 결정 하나하나가 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즉 젊은이들에

게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다시금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권하고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발 정책인 교육정책은 말들인 젊은이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백락에 해당하는 우리사회 지도층이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육정책의 작은 변화에도 어떤 말들은 천리마로 달릴 수 있게 되나, 어떤 말들은 백락의 얼굴도 못 보고 죽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과 서울의 교육격차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요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러한 부분이 많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려면 시골 구석의 천리마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보려는 백락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일꾼으로 비유될 만한 사람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글을 권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글에서 일꾼들은 비록 지체는 낮으나 천리마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만약 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유심히 관찰하고 애정을 갖고 대한다면, 말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고, 말을 먹이고 다루는 법을 더 익혀 조금씩 변화를 주어 개선을 시도한다면, 어쩌면 자신에게 백락과 같은 말 감별의 재능이 있음을 깨달을 지도 모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왕 일을 하게 된 것이라면 주의 깊게 일을 하며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2] 천리마의 입장에서 인공지능 말감별 프로그램의 도입은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과거 천리마로 분류되었던 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새로운 말들을 감별하게 한다면, 시간, 공간, 인력의 제약을 모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두 가지는 여전히 걱정으로 남습니다.

첫 번째는 귀납적 오류로 인한 오판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작동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로 만들 만한 천리마의 개체 수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천리마가 흔한 것은 아니니까요. 즉, 과거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놓쳤던 천리마들의 특성은 반영될 수 없고, 백락과 같은 이들에 의해 천리마로 인정받았던, 얼마 되지 않는 천리마들의 특성만 프로그램에 반영되게 됩니다. 이러한 소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귀납적 추론을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오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천리마를 보통 말이라고 판단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과 편견의 정당화 및 고착화 가능성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철저히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만약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편견도 프로그램에 개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TED에서 인공지능의 편견에 대해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연자는 신입사원 선발 프로그램이 임신 가능성이 높은 직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기업의 편견을 그대로 학습했다는 사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인공지능도 여전히 과거의 편견이나 차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계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판단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한 편견이나 차별이 정당화되고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과거의 사례, 이미 밝혀진 사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신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하겠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하되, 천리마로 판별되지 못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더욱 유심히 살펴보는 주의 깊은 감별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